



제2회 2006 스마트홈네트워크쇼

## 미래 최첨단 IT 주택은 과연?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미래의 주거 환경을 제시하는 '2006 스마트홈네트워크쇼'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정보통신 회사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내 주택 산업의 방향과 미래 주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2006 스마트홈네트워크쇼' 행사 탐방기. 에디터 김소진 사진·자료 제공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미래의 첨단 주거 환경을 선보이는 홈네트워크 전시회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5월 30일부터 5일간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2006 스마트홈네트워크쇼'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2006 스마트홈네트워크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KT, SK텔레콤, 한국전력공사, 삼성물산 등 홈네트워크 분야의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등 총 119개사가 539개 부스에 서 총 1만 2000여 점의 제품을 출품·전시했다.

5월 30일 11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홍석우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 이주영 경상남도 부지사 등 정부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에는 개막식과 함께 우수 업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는 전자부품연구원, 서울통신기술(주), (주)씨브이네트, 대한주택공사, 현대건설(주), SK건설(주) 등 총 9개 업체가 수상했다.

**공상 만화에 나올 법한 홈네트워크 시스템 시연 흥미진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스마트홈네트워크쇼는 세계 유일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전문 전시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형 첨단 주택을 구성할 IT 기기들이 총출동해 다양한 볼거리와 화제를 낳았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TV를 통해 인터넷, 쇼핑, 뉴스, 게임, 교육 등 디지털 콘텐츠를 집안 어디서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LG전자는 한 개의 카드로 집안의 모든 출입을 관리, 제어하는 시스템을 비롯해 PDA를 이용해 제어하거나 혈압, 혈당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주치의와 원격 진료 가능한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SK텔레콤은 모바일을 통한 가전 제어, 침입 감시 등 디지털 홈서비스와 가정에서 구현하는 광대역 통신망·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을 시연했다.

이동통신업체인 KT와 SK텔레콤 부스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홈네트워크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바로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액자'와 RFID 태그가 부착된 음식 재료를 조리대에 올려놓으면 휴대폰으로 조리 방법이 전송되는 'RFID 조리대'를 직접 시연해볼 수 있도록 했다. KT는 홈네트워크와 연결된 로봇 4개 종이 날씨, 뉴스, 영상 메시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로봇존을 설치했다.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건설업체들의 부스도 상당히 흥미로웠다. 삼성물산은 유비쿼터스와 친환경 주거 환경이 접목된 가상 공간을 꾸렸다. 이 안에 들어서면 무인정보 검색단말기인 키오스크를 비롯해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 아래에 있는 사람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지향성 스피커 등 SF 공상 만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주거 환경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게 했다.



정부 관련 부처도 우리나라 홈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산자부는 홈네트워크 관련 8개 정책 과제를 나타낸 '산업자원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시연관'을 정통부, 건교부는 각각 관련 정책의 성과와 향후 목표를 제시하는 '정통부 홈네트워크 홍보관'과 '건교부 홈네트워크 홍보관'을 만들어 우리나라 홈네트워크 산업의 조기 활성화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었다.

**세계 최초 홈네트워크쇼, 국내외 관람객 2만 명 이상 대거 방문** 이번 세미나는 부대 행사 또한 풍성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유력 건설업체 및 도시개발 CEO 초청 무역 상담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건설 시장에 우리나라 홈네트워크 제품과 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하는 계기가 됐다. 아시아의 유력 전자·IT 기업 초청 수출상담회, 스마트홈 산업 포럼, 아시아홈네트워크협의회 발족식 및 세미나 등도 전시회 참가 업체와 홈네트워크 관련 기업에 많은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지난 6월 2일 전시장에서 개최된 바이어와 참가 업체를 위한 갈라(GALA) 파티는 참가업체와 국내외 관람객들이 어울려 정보를 교류하고 우정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2006 스마트홈네트워크쇼'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진흥회 박순길 차장은 "올해 전시회는 미래 첨단 주택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홈네트워크 관련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촉진, 수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2만 2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 바이어 1350여 명이 방문해 54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 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관람객은 12.8%, 수출 상담은 54.3% 늘어난 것으로, IT 강국답게 모바일과 홈네트워크를 접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국내외 관람객들과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